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 · 영 병렬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유형분석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나현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 · 영 병렬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유형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나현

김나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22일



주 심 문 학 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ii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4
2.1 한국어 사슬동사의 특징	4
2.2 한국어 보조동사	5
제 3장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유형	12
3.1 유형1 : 하나의 동사만 번역된 경우	14
3.1.1 V_1 만 번역된 경우	14
3.1.2 V_2 만 번역된 경우	22
3.2 유형2 - 두 개의 동사가 번역된 경우	24
3.2.1 [V_1+V_2]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	24
3.2.2 [V_2+V_1]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	26
3.3 유형3 - 제3의 어휘로 번역된 경우	30
제 4장 결론	33
참고문헌	35

표 목 차

<표 1> 한국어 사슬동사 번역에 따른 분류 유형 12

<표 2> 한영 병렬자료에서 조사한 사슬동사의 번역 유형과 빈도.. 13



An Analysis of Translation Patterns of Korean Serial Verbs into English

Kim, Na Hyeo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Korean serial verb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The Korean-English parallel corpus is taken from two Korean novels,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Shin, 2012) and *Our Twisted Hero*(Lee, 1992). According to the number and order of the translated verbs, 221 sentences including the serial verb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ype 1, translating one verb only; Type 2, translating both verbs; and Type 3, paraphrasing. Pattern 1 is reclassified into two sub-categories, which are the translation of 'V₁ only' and 'V₂ only', and, Pattern 2, into two sub-categories, which are translating into [V₁ + V₂] and [V₂ + V₁].

Type 1 features in what verb has the central meaning of the serial verbs, and whether the serial verbs have the auxiliary verbs. In Type 2, among two verbs of the serial verbs, the verb which stands for the central meaning precedes the other verb, which represents as adverbs, prepositions, or nouns. Korean serial verbs of Type 3 are paraphrased when translating into English.

제 1장 서 론

영어로 말하거나 작문할 때 많은 한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미를 떠올리고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두 언어는 통사적, 의미적 영역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꿨을 때 어색한 표현, 즉 간섭(interference)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신봉수(1999)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서도 특히 초급학습자들이 영어 작문을 할 때 모국어 전이(45.7%)로 인한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초급학습자들이 모국어와 목표언어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모국어에 대한 정보를 목표언어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초급학습자들이 ‘알아보다’, ‘내려다보다’ 등의 모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알다’로 번역해야 할지 ‘보다’로 번역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동사가 결합되어 $[V_1\text{-아/어} + V_2]$ 구조나 $[V_1\text{-고} + V_2]$ ¹⁾ 구조를 나타내는 서술어(이영현, 1996)를 사슬동사(Serial Verbs)라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a. 아직 같은 반이 된지 한 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만은 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21)
b. We had only been in class together for an hour, but this fellow I knew.
(*Our Twisted Hero*, 2001:10)
- (2) a. ... 그 곁에 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풍금이 있던 자리, 2012:68)

1) 이후 사슬동사의 선행동사는 V_1 으로, 후행동사를 V_2 로 표기한다.

b., and that woman standing beside her endlessly staring at the ground...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2012:71)

(3) a. 한동안 유리창들을 석대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
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107)

b. Sokdae examined the windows for a while. he said, and then he ran
back out to the playground. (*Our Twisted Hero*, 2001:82)

문장 (1)의 ‘알아보다’는 ‘알다’와 ‘보다’가 합쳐진 사슬동사이고, (2)의 ‘내려다보다’는 ‘내리다’와 ‘보다’가, (3)의 ‘뛰어나가다’는 ‘뛰다’와 ‘나가다’가 합쳐진 사슬동사이다.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동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알아보다’의 ‘알다’만 번역해야할지, ‘보다’만 번역해야할지, 둘 다 번역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1), (2), (3)에서 나타난 한국어 사슬동사들은 각각 다른 형태로 번역되었다. ‘알아보다’는 V₁만 번역하여 ‘know’로, ‘내려다보다’는 V₂만 번역하여 ‘stare’로, ‘뛰어나가다’는 모두 번역하여 ‘run out’으로 번역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사슬동사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각각의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한된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사슬동사를 조사하여 영어로 번역된 문장들의 구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사슬동사의 두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가 번역이 되고 생략되는지, 그 동사의 번역 순서는 어떠한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사슬동사와 병렬되는 영어자료는 아래의 자료로 제한한다.

연구에 사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는 신경숙(2012)의 「풍금이 있던 자리」(이하 ‘풍금’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Tennant(2012)의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이하 ‘Harmonium’으로 약함), 그리고 이문열(1992)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영웅’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O'Rourke(2001)의 *Our*

Twisted Hero (이하 ‘Hero’으로 약함)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한국어의 사슬동사의 특징과 한국어 사슬동사에서 주로 V_2 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보조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한영 병렬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번역 유형을 번역된 동사의 개수를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아래 번역된 동사의 종류와 순서에 따라 5가지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남겨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사슬동사의 특징

한국어에서 한 문장 내에서 두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이 형태를 동사구(verb phrase)로 보고 V_1 을 본동사로, V_2 를 보조용언(조동사)로 간주한 것이다(최현배, 1971; 김석득, 1992; 서정수, 1996 등). 두 번째 주장은 복합동사(complex verb)로 간주하며 V_1 과 V_2 를 독립적인 내용어로 보고 의미적 차이를 연구한 것이다(Yang, 1978). 세 번째 주장은 이를 사슬동사(serial verb)로 본 것이며(Lee, 1992; 이영현, 1996), 마지막은 의미적 특성에 따라서 조동사 복합술어(auxiliary verb complex predicate)와 사슬동사 복합술어(serial verb complex predicate)로 구분한 것이다(Kim&Yang, 2003).

이 논문에서는 세 번째 주장인 사슬동사(serial verb)로 보는 입장을 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영현(1996)은 사슬동사를 [V_1 + /-고/ + V_2]구조(이하 /-고/ 구조)와 [V_1 + /-어/ + V_2]구조(이하 /-어/ 구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 구조를 일반적인 구조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 구조로 이루어진 구성은 동사 연결 구성의 다양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 연결에 관한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강현화, 1996).

2.2 한국어 주요 보조동사

보조동사에 대해 최현배(1937/1985)는 “도움움직씨(보조동사)란 것은 제홀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으뜸 움직씨(본동사)의 뒤에 붙어서 그 풀이하는 일을 돕는 것”이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다(박선옥, 2005, 재인용). 남기심(1985:116)은 “다른 말에 기대어 쓰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으로 정의하였고, 비슷한 맥락으로 허웅(1975)은 선행 동사 없이 후행 동사만으로 문장 성립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그 기준을 두고 불가능하면 보조동사로 보았다(강현화, 1996, 재인용). 적절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a. 저는 제 심정을 글로 옮겨 놓는 재주만 없었던 게 아니라(풍금, p.34)
b. *저는 제 심정을 글로 놓는 재주만 없었던 게 아니라

(4a)의 ‘옮겨 놓다’라는 서술어에서 ‘놓다’는 ‘옮기는’ 행위로 상태가 변화된 결과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한다(남기심, 1985; 이기동, 1979). 또 선행 동사 ‘옮기다’를 생략해보면, 남아있는 후행 동사 ‘놓다’만으로 문장 성립이 불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이 때 ‘놓다’라는 후행 동사는 ‘옮기다’에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인 보조동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동사의 경계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으나 위 내용을 종합하면, 보조동사는 다른 동사와 함께 기능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되 독립적으로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동사로 정의내릴 수 있다. 박선옥(2005)의 분류를 참고하여 빈도가 높은 보조동사 중심으로 문법적 의미를 따라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2.2.1 ‘가다’와 ‘오다’

보조동사‘가다’는 ‘진행’이나 ‘지속과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박선옥, 2005, 재

인용). 이기동(1977:1~21)은 동사와 결합할 때는 ‘동작의 계속’, 형용사에 결합할 때는 바라거나 예상되는 상태가 기준점이 될 때 ‘바라거나 예상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 (5)와 같다.

- (5) a. 비가 그쳐 간다.
b. 그는 빗을 다 갠다 간다.

예문 (5)에서 보조동사 ‘가다’는 문장 명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행동사 ‘그치다’나 ‘갠다’의 동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조동사 ‘오다’는 ‘가다’와 같이 ‘진행’, ‘지속’과 같은 상 의미를 갖는다. 보조동사 ‘오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때는 기준점까지 동작이 계속되는 경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정상 상태가 기준점이 되어 무엇이 정상 상태로 되는 경우,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화자가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 사용된다(이기동, 1977). 예를 들면 다음 (6)와 같다.

- (6) a. 방바닥이 점점 식어 온다.
b. 철수는 4년 동안 테니스를 쳐 왔다.

시간상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6a)는 과거 언제인가부터 현재까지 이 개가 우리와 함께 사는 행위의 지속이며, (6b)는 과거 언제부터인가 견디는 행위의 지속이다.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여, 문법적 성질인 “진행”이나 “지속”, “반복”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 쓰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7) a. 그 사람이 다 죽어 간다.
b. 그 사람이 그 고생을 겪어 왔다.

(7a)의 ‘가다’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죽는 상태가 현재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7b)에서 ‘오다’는 고생을 겪은 것이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가다’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오다’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및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 즉, 보조동사 ‘가다’는 선행동사가 의미하는 바의 목표점을 향해 다가감을 드러내고 보조동사 ‘오다’는 시간의 선상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까지의 진행 및 지속 의미를 표현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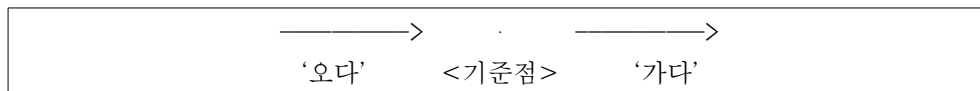
2.2.2 ‘보다’

보조동사 ‘보다’는 주로 ‘시험’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어떤 행위를 시험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겪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구문에 따라서는 ‘경험’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한 구문에서는 ‘가정’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박선옥, 2005).

‘시험’의 의미가 표현된 예시는 (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8) a. 가장 먼저 질문 신청하신 분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b. 그러면 한의원에 한 번 가 보세요.

2) 이기동(1977:148-150)에서는 ‘오다’는 [+과거진행성], ‘가다’는 [+미래진행성]의 의미 자질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8a)는 질문 신청자에게 만나서 ‘시험 삼아’ 질문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8b)는 화자가 청자에게 한의원에 ‘시험 삼아’ 가서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유하며 보조동사 ‘보다’를 사용하고 있다.

‘경험’의 의미를 더하는 ‘보다’는 다음 (9)과 같다.

- (9) a. 작년에 제주도에 가 보았어요.
b. 그렇게 큰 물고기는 잡아 보지 못했어요.

위의 (9)와 같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경험’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험’과 ‘시행’ 모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과거 시제가 쓰이면 행위를 과거에 완료했다는 의미가 있어서 ‘경험’이 확실해진다. (9a)와 (9b) 각각 제주도에 간 자신의 경험과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경험을 표현하며 보조동사 ‘보다’가 사용된다.

2.2.3 ‘주다’

보조동사 ‘주다’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동시켜 건넨다는 의미로 본래의 의미와 유사하다. 대체로 앞선 연구에서는 아래 (10a)와 같이 ‘봉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0b)처럼 당사자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선행동사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도 한다(박선옥, 2005).

- (10) a. 환자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b. 그에게 큰 짐을 안겨 주었다.

(10a)는 본동사인 사동사인 ‘먹이다’에 보조동사 ‘주다’가 결합되어 대상에게

밥을 먹이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한층 더하고 있다. 반면에 (10b)는 큰 짐을 안는 당사자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므로 ‘봉사’라는 의미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어 ‘제공’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2.2.4 ‘놓다’와 ‘두다’

최현배(1994:406)는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의 의미 모두를 ‘보유’라 하였다. 이후 다른 학자들은 두 동사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김명희(1984)는 ‘놓다’는 ‘맹 목적 보유’로, ‘두다’는 ‘보류의 성질을 가지는 보유’로 보았고, 이기동(1979)은 ‘놓다’와 ‘두다’는 모두 선행동사의 결과에 중점을 두지만 ‘놓다’는 ‘상태 변화’ 의미를, ‘두다’는 ‘상태 유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박선옥, 2005, 재인용). 종합하면,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는 본동사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상태를 유지 하거나 보존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래 (11)와 같다.

- (11) a. 철수는 점심을 먹어 놓았다.
b. 철수는 점심을 먹어 두었다.

여기서는 명제 내용인 철수가 점심을 먹는 행위를 완료하여 그 상태를 유지, 보존한다는 의미가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11b)는 보존의 의미이외에도 ‘대비’의 의미가 포함된다.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는 선행동사의 행위를 완료하여 ‘지속’하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다음 예문 (12)을 통하여 각각의 행위가 다른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2) a. 식사 준비를 해 놓았다.
b. 내일 경기를 위해서 잘 쉬어 두자.

(12a)에서는 어떤 일에 대비하여 식사 준비를 미리 완료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보조동사 ‘놓다’가 사용되었다. (12b)에서는 ‘내일 경기를 위해서’ 미리 쉬며 ‘대비’한다는 의미를 보조동사 ‘두다’가 더하고 있다.

2.2.5 ‘버리다’와 ‘내다’

최현배(1937)는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를 ‘끝남’으로, 李周行(1976)은 ‘완결’, 고영근(1993)은 ‘끝남 강조’로 보았다(박선옥, 2005, 재인용).

- (13) a. 동생이 과제를 먹어 버렸다.
b.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갔더니 친구들은 모두 가 버리고 없었다.

(13a)에서는 보조동사 ‘버리다’가 선행동사에 의해 이끌리는 행위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13b)에서도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행위가 끝났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이처럼 보조동사 ‘버리다’는 시간선상에서 문장의 내용 장면이 이미 끝났다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보조동사 ‘버리다’는 다음 (14)와 같이 ‘완료’의 의미 외에도 ‘강조’와 ‘생각에 어긋남’, ‘부담의 제거’라는 의미도 나타낸다.

- (14) a. 영희가 꽃병을 깨 버렸다.
b. 나는 그의 책을 찢어 버렸다.
c. 아픈 이를 치과에 가서 빼어 버리겠다.

(14a)는 V₁인 ‘깨다’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버리다’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14b)는 책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화자가 책을 찢는 것을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는데 그 행위를 하여 책 주인 또는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어긋났음을 ‘버리다’를 덧붙여 표현하고 있다. (14c)는 ‘부담의 제거’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으로, 아픈 이를 뽑아서 부담스러운 것을 없앤다는 의미를 ‘버리다’로 나타내고 있다.

최현배(1937)은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 ‘내다’를 ‘끝남’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96)과 손세모들(1996)은 ‘종결’내지 ‘완결’이라고 하였다. 그와 다른 의미로 柳穆相(1980)은 ‘끝까지 견디다’라는 뜻으로 ‘관철’이라고 하였다(박선옥, 2005, 재인용). 그 예는 아래 문장과 같다.

- (15) a. 나는 비밀을 밝혀 내었다.
 b.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
 c. 그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 냈다.

(15a)에서 드러나듯이 ‘내다’는 ‘밝히다’의 행위 또는 사건인 비밀을 밝히는 일의 끝남을 나타내는 완료 의미를 갖는다. (15b)의 보조동사 ‘내다’는 끝까지 견뎌내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일을 완료한다는 화자의 의지 ‘관철’이 들어간다. 조금 더 확장하여서 양태적으로 (15c)는 주어가 ‘참다’라는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완결시킬 수 있다는 ‘주어 의지’의 의미가 나타난다.

제 3장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유형

한영 병렬자료에서 한국어 사슬동사와 그의 영어 번역을 조사한 결과 발견된 221개의 사슬동사 중에서 생략되었거나 분류 조건에 맞지 않는 9개(4.1%)를 제외하고, 221개의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병렬자료에서 한국어 사슬동사가 번역된 영어 문장들을 아래 <표 1>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한국어 사슬동사 번역에 따른 분류 유형

유형	분류	분류 내용
유형 I	하나의 동사만 번역	• V₁만 번역된 경우 • V₂만 번역된 경우
유형 II	두 개의 동사를 번역	• V₁+V₂의 순서로 번역 • V₂+V₁의 순서로 번역
유형 III	기 타	• 제3의 어휘로 번역
		생략 및 기준 미포함

영어 언어자료에서 찾은 문장들은 번역된 동사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를 유형 I 로, 동사 2개가 번역된 경우를 유형 II로, 사슬동사의 두 동사가 의역되었거나 두 의미가 결합된 제3의 어휘로 번역된 경우를 유형 III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I 을 다시 V₁만 번역된 경우, V₂만 번역된 경우로 나누고, 유형 II도 두 동사의 번역순서를 따라 [V₁+V₂]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 [V₂+V₁]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로 분류한다. 한국어 언어자료에서 발견된 221개의 사슬동사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문을 <표 1>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영 병렬자료에서 조사한 사슬동사의 번역 유형과 빈도

자 료		풍 금	영 웅	합 계	비율(%)
유 형					
유형 I	V ₁ 만 번역	43	48	91	41.2
	V ₂ 만 번역	15	10	25	11.3
유형 II	V ₁ +V ₂ 로 번역	5	10	15	6.8
	V ₂ +V ₁ 로 번역	21	21	42	19
유형 III	제3의 어휘로 번역	11	28	39	17.6
기 타		5	4	9	4.1
합 계		100	121	221	100

<표 2>에서 ‘풍금’은 100개, ‘영웅’은 121개로 총 221개의 사슬동사를 조사하였다. 이 중 두 자료 모두 유형 I의 V₁만 번역된 경우가 총 91개(41.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V₂+V₁]의 순서로 나타난 번역이 42개(19%), 비슷한 비율로 제3의 어휘로 번역한 것으로 총 39개(17.6%)였는데, 비율상 ‘풍금’에서 보다 ‘영웅’에서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V₂만 번역된 경우가 25개(11.3%),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비슷한 의미역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 [V₁+V₂]의 순서로의 번역은 15개(6.8%)로 가장 적었다. 기타의 유형은 세 개의 동사가 사슬동사를 이룬 경우와 생략된 경우가 포함되었고 비율상으로는 4.1%에 해당한다. 위에서 분류된 유형을 따라 한영 병렬자료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유형 I : 하나의 동사만 번역된 경우

한국어 사슬동사의 V_1 또는 V_2 중에서 하나의 동사만 영어로 번역된 경우를 유형 I로 보고, 이 유형에는 선행동사인 V_1 만 번역된 경우와 후행동사인 V_2 만 번역된 경우가 포함된다. 본 병렬자료에서는 V_1 만 번역된 경우가 221개중 91개 (4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V_2 만 번역된 경우는 25개(11.3%)로 나타났다.

3.1.1 V_1 만 번역된 경우

영어로 번역된 V_1 의 품사는 총 91개 중에서 72개가 동사로 나타났고, 동사구의 형태로 3개가 있었다. 부사의 형태가 11개,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로 각각 2개, 3개씩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원래 품사와 같은 동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의 V_2 가 보조동사인가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V_2 가 보조동사인 경우는 V_1 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고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번역에서 생략(55개)되고, V_2 가 보조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V_1 에 상대적으로 의미적 초점이 맞춰져서 V_1 만 번역된 것(37개)으로 보인다.

A. V_2 가 보조동사인 경우

주된 의미를 갖는 V_1 만으로 충분히 본래 의미를 나타내며, V_2 가 보조동사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며 V_1 에 기대어 나타나기 때문에 V_2 가 번역에서 생략되는 경우이다. 보조동사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본동사가 없을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므로 아래와 같이 V_2 가 보조동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 (16) a. 기껏해야 달걀을 가져온 아이에게 빙긋 웃은 게 전부였다.
b. *기껏해야 달걀을 가져온 아이에게 빙긋 준 게 전부였다.

- (17) a.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 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 옷은 입지도 말아라.
 b.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 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16a)와 (17a)는 V_1 만 남긴 문장이고, (16b)와 (17b)는 V_2 만 남긴 문장이다. 이때 (16a)와 (17a)는 V_1 만으로 한국어 사슬동사의 본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16b)는 표면적으로도 어색하고 (17b)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본래 의도하는 사슬동사의 의미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사슬동사의 V_2 는 본래의 기본의미는 사라지고 문법적 의미로 V_1 을 보조하기 때문에 V_1 이 생략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16)과 (17)는 공통된 보조동사 V_2 인 ‘주다’는 V_1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본래의 ‘주다’의 의미인 ‘물리적인 제공’과는 다르게 2.2.2에서 언급한대로 ‘수혜’ 또는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이다.

2.2의 보조동사 분류에 따라 V_2 가 보조동사이므로 V_1 만 번역된 경우에 속하는 사슬동사들을 본 병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1. ‘가다’와 ‘오다’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는 2.2에서 다룬 것과 같이 상태 변화의 ‘진행’ 또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를 갖는다. 다만 보조동사 ‘가다’는 선행동사가 의미하는 바의 목표점을 향해 다가감을 드러내고 보조동사 ‘오다’는 시간의 선상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까지의 진행 및 지속 의미를 표현한다. 본 언어자료에서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가 사용된 사슬동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8) a. 실은 그것이야말로 그 뒤 반 년이나 이어갈 내 외롭고 고달픈 싸움

의 시작이었다. (영웅, p.44)

- b. In fact, it was the beginning of a lonely, tedious fight which continued for the next six months. (Hero, p.29)

(19) a. 다만 그동안 우리는 아주 위태롭게 사랑 쪽을 지켜 왔던 것 아닌가요? (풍금, p.44)

- b. ...and we have delicately kept to the side of love so far. (Harmonium, p.47)

(18)에서 ‘이어가다’는 V₁인 ‘잇다’와 V₂인 ‘가다’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이며, 여기서 V₂인 ‘가다’는 한국어의 보조동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다’는 본래 의미인 이동의 뜻이 아니라 ‘잇다’라는 동사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지속됨’을 의미한다. (19)는 ‘지키다’와 ‘오다’가 합쳐진 사슬동사로 ‘지키다’만 완료형 ‘have kept’으로 번역되었고, ‘오다’는 본래 의미인 ‘come’이 아니라 보조동사의 문법적 의미인 ‘시간의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는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간접적으로 번역되었다.

A-2. 보다

‘보다’의 기본 의미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성을 갖는다’이다. 여기서 살펴볼 보조동사인 ‘보다’는 ‘시험 삼아 해보다’와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 a. 엄석대가 없는 곳에서 하나씩 불러 물어 보시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적어내게 해보십시오. (영웅, p.81)

- b. Call them one by one when Sokedae isn't there, then ask them, or get

them to write it out without signing their names. (Hero, p.59)

(21) a. 직접으로는 제대로 겪어 보지 못했으나, ...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어떤 끔찍한 예정처럼 보였다. (영웅, p.37)

b. I had not as yet directly experienced the full brunt, ... it seemed like a horrible prearranged plan inexorably becoming reality. (Hero, p.19)

(22) a.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 몰려와 묻는다는 게 고작 전차를 타 봤
는가 (영웅, p.17)

b. ...and when finally at lunchtime a few boys did gather around, it was only to ask, have you been on a tram, have you seen South Gate, this sort of question. (Hero, p.9)

(20a)의 사슬동사 ‘물어보다’는 보조동사 ‘보다’가 생략되고, ‘묻다’만 ‘ask’로 번역되었다. V₂인 ‘보다’는 보조동사로써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사슬동사가 ‘묻는 행위를 시험 삼아서 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중심의미가 아닌 보조동사인 ‘보다’는 (20b)에서 생략되었다. (21a)는 보조동사 ‘보다’의 또 다른 의미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겪다’와 결합되어 사슬동사가 되었다. V₁인 ‘겪다’라는 동사 자체가 ‘(경험을) 겪다’라는 의미이므로, V₂가 V₁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1b)에서 'had experienced'로 번역되었는데, 보조동사 V₂가 ‘경험’을 표현하는 완료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은 V₁이 부사로 번역된 경우로, 사슬동사 ‘타 보다’의 V₁인 ‘타다’만 부사 ‘on’으로 번역되고, ‘보다’는 영어 번역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때 보조동사 ‘보다’도 ‘경험’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것으로 사용되며 번역에서는 생략되었다.

A-3. 주다

보조동사 ‘주다’는 ‘봉사’ 또는 ‘수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부정적인 것이 대상에게 주어질 때는 ‘제공’이라는 의미로 갖는다.

(23) a.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책을 읽어 주고 있는데, 어느 대목이 재미있어서 막 웃고 있는데, 큰오빠가 들어왔어요. (풍금, p.70)

b. One day, she read me a story book. It was so funny at one point that I was laughing my head off when he came into the room.
(Harmonium, p.75)

(24) a.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 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아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풍금, p.26)

b. Therefore you are not to eat anything she cooks, or answer any of her calls or wear any clothes that she has washed. (Harmonium, p.29)

(25) a. 거기다가 그런 내 첫인상을 더욱 굳혀 준 것은 교무실이였다. (영웅, p.12)

b. It was the faculty room that really hardened my first impression.
(Hero, p.6)

(23a)의 사슬동사 ‘읽어 주다’에서 나타나는 ‘주다’의 의미는 주어진 ‘그 여자’가 수혜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23b)에서는 문법적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인 ‘주다’가 번역되지 않고, V₁인 ‘읽다’만 ‘read’로 번역되었다. (24)의 경우에도 V₁인 ‘빨다(세탁하다)’와 V₂인 ‘주다’가 결합된 사슬

동사 ‘빨아 주다’가 영어로 번역될 때에는 V₁인 ‘빨다’의 의미만 완료형의 형태인 ‘have washed’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V₂도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이므로 번역되지 않았다. (25a)도 ‘굳혀 주다’에서 V₁인 ‘굳히다’(‘굳다’의 사역형)만 ‘harden’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는 교무실이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첫인상을 굳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동사 ‘굳히다’에 보조동사 ‘주다’가 더해져서 첫인상을 ‘제공’한 출처인 교무실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A-4. 놓다, 두다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는 본동사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상태를 ‘유지, 보존함’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며, 어떤 다른 행위를 ‘대비’, ‘준비’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 (26) a. 어머니께서 그네 밑에 깔아 놓으셨던 닳은 아버지 내복을 그 여자는 맨 먼저 걸어냈어요. (풍금, p.46)
 b. Mother had laid father's old underwear at the bottom of it. She removed it and put in its place, ... (Harmonium, p.51)
- (27) a. 그날, 그 수돗가에 손목시계를 벗어 두고 온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알았습니다. (풍금, p.14)
 b. When I got home that day I realized that I had taken my wristwatch off and left it by the tap. (Harmonium, p.15)
- (28) a. 어머니께서 미리 보리를 삶아 놓았습니다. (풍금, p.48)
 b. Mother boiled the barley beforehand. (Harmonium, p.51)

(26a)의 사슬동사 ‘깔아 놓다’는 V₁인 ‘깔다’만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놓다’는

보조동사로 ‘까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 그 상태가 유지, 보존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놓다’의 본래 물리적 의미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완료된 행동의 유지’라는 의미가 완료형의 결과적 용법으로 간접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27a)의 ‘벗어 두다’의 V₁인 ‘벗다’는 (27b)에서 동사구 ‘take off’로 번역되었으나 보조동사 ‘두다’는 번역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두다’는 시계를 ‘벗은’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8a)의 ‘삶아 놓다’도 (28b)에서 V₁인 ‘삶다’만 ‘boil’로 번역되었다. (28a)에서 V₂인 ‘놓다’는 부사 ‘미리’와 함께 어떤 행위를 ‘대비’하여 ‘삶는’ 행동을 완료하였다는 문법적 의미를 V₁에 더하는 역할을 한다. (28b)에서는 부사인 ‘beforehand’와 과거형 ‘boiled’로 보조동사 ‘놓다’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A-5. 버리다, 내다

보조동사 ‘버리다’는 2.2에서 언급함과 같이 ‘끝남’, ‘완료’ 등의 의미 외에도 ‘강조’와 ‘생각에 어긋남’, ‘부담의 제거’라는 의미도 나타낸다.

- (29) a. 너희 아버지가 그 귀한 걸 잃어버리고 가만 있을까? (영웅, p.62)
 b. Your father won't mind losing such a fine lighter? (Hero, p.37)

(29a)의 사슬동사 ‘잃어버리다’는 V₁인 ‘잃다’와 V₂인 ‘버리다’가 합쳐진 동사이다. 여기서 ‘버리다’는 귀한 것을 ‘잃은’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잃어버린 행위가 청자의 아버지와 청자의 ‘생각에 어긋남’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내에서 핵심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번역되지 않고 V₁인 ‘잃다’만 ‘lose’로 번역되었다.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 ‘내다’도 2.2에서 ‘끝남’, ‘완결’ 혹은 ‘끝까지 견디다’라는 뜻의 ‘관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 (30) a. ... 또한 어른들이 그 누구도 그런 그걸 다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듯
아이들 역시 그 모든 걸 다 지켜내기는 어렵다. (영웅, p.100)
- b. ... and just as no adult is able to observe all those rules, it is difficult
for a child to observe all the rules either. (Hero, p.75)

(30a)의 사슬동사 ‘지켜내다’도 V₁인 ‘지키다’만 ‘observe’ 번역되었다. 이 문장에서 V₂인 보조동사 ‘내다’는 ‘지키다’라는 V₁동사에 ‘끝까지 견디어 (관찰시키다)’라는 보조적 의미를 더하고 (30b)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형I의 V₁만 번역한 경우에 속하는 사슬동사들은 보조동사인 V₂는 번역되지 않고 핵심 의미를 갖는 V₁만 번역되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슬동사에서는 V₁이 주된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B. V₂가 보조동사가 아닌 경우

V₁이 동사로 번역된 경우 중에서 V₂가 보조동사가 아닌 경우(37개)는 상대적으로 의미적 초점이 V₁에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한영 병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a. ...저는 당신 이외의 다른 감정을 모두 뭉개려만 드는 이기주의라고
당신을 물어뜯었습니다. (풍금, p.36)
- b. ...while I inflicted on you savage bites calling you. “an egoist who tries
to squash all other feelings except your own.” (Harmonium, p.41)
- (32) a. 그 다락은 경사진 좁은 계단을 몇 개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풍금, p.70)
- b. To reach the attic I had to climb a few steep and narrow steps.
(Harmonium, p.77)

- (33) a. ..., 장성택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썰
썩한 표정으로. (풍금, p.22)
- b. She went as far as to lower the jar to the ground to stare at us with a
contemptuous, hostile look. (Harmonium, p.25)

(31)은 V₁이 명사로 번역되어 사슬동사 ‘물어뜯다’의 V₁인 ‘물다’가 명사 ‘bites’로 번역되었다. V₂인 ‘뜯다’는 여기서 V₁인 ‘물다’를 강조하는 역할로 중심 의미가 아니다. (32a)의 ‘가다’는 보조동사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다락으로 (위로) ‘가는(V₂)’ 행위를 나타내며 본래의 기본의미를 갖는다. 이때 다락으로 ‘오르는(V₁)’ 행위 속에 ‘가다(V₂)’가 포함되므로 V₁이 V₂보다 더 큰 의미, 중심 의미를 갖는다. 문장 (33a)의 V₂인 ‘놓다’도 보조동사가 아닌 본래 기본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역시 V₁인 ‘내리다’에 V₂인 ‘놓다’가 포함되므로 V₁만 번역되었다.

3.1.2 V₂만 번역된 경우

한편 V₂만 번역된 경우의 품사는 주로 동사였고, 수동의 의미가 반영된 과거 분사로 1개, 그 외에 부사, 명사, 형용사의 형태도 각각 1개씩 나타났다. 그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 (34) a. ...점촌택이 제사장을 봐 머리에 이고 오는 중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짐자전거를 피하려다 다리 밑으로 굴러 다리를 다치셨다는 것이었습니
다. (풍금, p.38)
- b. One day, she was carrying on her head a sacrificial table laid out with
food, when she met up with a cyclist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Harmonium, p.41)

예문 (34)에서는 V₁로 ‘달리다’와 V₂ ‘오다’가 합쳐져서 사슬동사 ‘달려오다’가 사용되었고, 영어로는 V₂인 ‘오다’만 ‘come’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점촌택이 자전거를 피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자전거가 ‘달리는(V₁)’ 것보다 자신에게로 ‘오고(V₂)’있기 때문이므로 V₂가 상대적으로 의미의 초점이 된다.

(35) a.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아이에 얻어맞는 일은 없게 된 것도 담임 선생님께서서는 그리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웅, p.53)

b. ...he ensured that no boy in our class got beaten by a boy from some other teacher either, ... (Hero, p.31)

(36) a. ...그때 나는 열두 살에 갓 올라간 5학년이었다. (영웅, p.11)

b. I was twelve; I had just gone into fifth grade. (Hero, p.5)

(35)는 V₂가 수동태의 형태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이다. 사슬동사인 ‘얻어맞다’에서 V₁인 ‘얻다’는 번역되지 않고 V₂인 ‘맞다’만 번역되었다. 한국어 V₁인 ‘얻다’는 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받게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해로운 것을 불가피하게 얻는 경우에도 ‘병을 얻다’, ‘욕을 얻어먹다’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남영신, 2005). 여기서는 ‘맞는’ 행위가 맞는 대상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므로 V₁인 ‘얻다’가 불가피하게 맞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V₂의 의미를 강조하여 수식하고 있다. 즉, 여기서도 사슬동사 의미의 초점은 V₂인 ‘맞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V₂의 원형이 되는 beat는 ‘때리다’라는 타동사적 의미인데, 여기서는 수동태 ‘get beaten’로 번역하여 맞은 대상이 바란 행위가 아닌 데 불가피하게 맞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36)의 경우에는 사슬동사 ‘올라가다’에서 ‘오르다(V₁)’가 생략되고 의미의 핵

심이 되는 ‘가다(V₂)’만 번역되었다. 영어에서는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는 표현을 위해서는 ‘go up’ 또는 ‘move up’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학년의 진급을 표현할 때는 ‘go into’ 또는 ‘enter’과 같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³⁾. 학년 진급에 대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방향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 I에서 V₂만 번역된 경우에 속하는 사슬동사들은 의미의 초점이 주로 V₂에 있으며, 강조하기 위해 덧붙여 수식하거나 추상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V₁이 번역 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2 유형 II : 두 개의 동사가 모두 번역된 경우

유형 II는 두 개의 동사가 모두 번역된 사슬동사 중에서 V₁과 V₂의 번역된 순서를 기준으로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V₁+V₂]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는 15개(6.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번역되었고, 두 번째 [V₂+V₁]의 순서로 번역된 것은 42개(19%)로 나타났고, V₁만 번역된 경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3.2.1 [V₁+V₂]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

[V₁+V₂]로 번역된 경우는 한국어와 가장 비슷한 동사의 개수와 순서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동사가 모두 동사로 번역되지 않고, V₁만 동사로 번역되고 V₂는 부사, 명사로 나타났다. 이에 V₂의 품사를 따라 다시 [V₁+부사]인 경우(11개)와 [V₁+명사]인 경우(4개)로 나누었다.

3)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http://corpus.byu.edu/coca/> 참조.

A. [V₁+부사]인 경우

[V₁+V₂]의 형태로 나타난 사슬동사 중에서 V₂가 부사로 나타난 경우(11개)의 자세한 예는 아래와 같다.

(37) a. ... 석대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영웅, p.107)

b. ... he said, and then he ran back out to the playground. (Hero, p.84)

(38) a. 된장 속에 들끓는 장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내는 여자,
(풍금, p.20)

b. ... there were those picking out, not a bit bothered, the swarming grubs from the bean paste jar; ... (Harmonium, p.23)

문장 (37)는 ‘뛰어나가다’라는 사슬동사를 동사 ‘뛰다(V₁)’를 ‘run’으로, ‘나가다(V₂)’를 부사 ‘out’으로 번역하였다. (38)에서 ‘집어내다’는 ‘집다(V₁)’로 ‘pick’을, ‘내다(V₂)’로 전치사 ‘out’을 사용하였다. 이때 (37)와 (38)의 V₂는 보조동사가 아니며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V₁의 결과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상 바깥을 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모두 ‘out’으로 번역되었다. 앞서 이기동(1977)은 ‘out’과 비슷한 우리말 동사로 ‘뿔다, 뿔히다, 빠다, 빠지다, 내다, 나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동사들은 닳아빠지다, 적어내다, 바뀔입다, 캐내다, 끌어내리다 등으로 모두 V₁은 동사로 V₂는 부사로 번역되었으며 V₂는 V₁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B. [V₁+명사]인 경우

본 한영병렬 자료에서는 $[V_1+V_2]$ 의 순서로 번역된 사슬동사 중에 V_2 가 명사로 나타난 경우(4개), V_2 가 모두 ‘보다’이며 ‘glance’로 번역되었다. 자세한 예는 아래와 같다.

(39) a. 곁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하다는 눈길로 나와 담임선생을 힐끗힐끗 훑쳐보았다. (영웅, p.81)

b. The other teachers, thinking something strange was going on, stole side glances at us. (Hero, p.60)

(40) a. 담임선생이 나를 힐끗 쏘아보더니 그래도 확인한답시고 다시 윤병조를 불렀다. (영웅, p.71)

b. The teacher shot an angry glance at me, but to confirm the information he called Yun Pyongjo. (Hero, p.50)

(39)의 경우는 [동사+명사]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훑쳐보다’라는 사슬동사에서 그대로 ‘훑치다(V_1)’는 ‘steal’로, ‘보다(V_2)’는 ‘glances’로 명사화되었다. 비슷하게 (40)처럼 ‘쏘아보다’라는 사슬동사도 ‘쏘다(V_1)’는 ‘shot’으로 ‘보다(V_2)’는 ‘glances’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39)의 ‘훑치다(V_1)’와 (40)의 ‘쏘다(V_1)’는 본래의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각각의 V_2 인 ‘보다’의 외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이다. V_1 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V_1 과 V_2 모두가 사슬동사에 의미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2 $[V_2+V_1]$ 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

$[V_2+V_1]$ 으로 번역된 동사들은 42개(19%)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이며, 세부

적으로 V₂는 모두 동사였고 V₁은 부사가 대부분(32개)이었다. 그 외에 전치사가 8개, 예외적으로 현재분사의 형태(1개)가 나타났다. 이때 한국어의 V₁은 주로 방향에 관련된 어휘로, ‘돌다(back)’, ‘내리다(down)’, ‘오르다(up)’, ‘올리다(up)’, ‘들다(in/into)’ 등이 나타났다. V₂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에 V₁이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돕고 있는 형태였다.

A. [V₂+부사]인 경우

먼저 V₁과 V₂의 순서가 바뀌며 V₂가 동사, V₁이 부사의 형태로 나타난 사슬동사(32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41) a. 금세 그 곁에 바짝 따라붙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느릿느릿 걷고 있던 병조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영웅, p.62)
 b. In a moment I was right beside him.... I called. Pyongjo had been walking very slowly, ... he looked back. (Hero, pp.35-36)
- (42) a. 그러다가 큰오빠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풍금, p.24)
 b. ...when I met his fierce eyes. Weakly I put it down. (Harmonium, p.27)

(41)의 사슬동사 ‘돌아보다’는 ‘보다(V₂)’가 번역되어 동사 ‘look’으로 먼저 나타나고, ‘돌다(V₂)’가 부사 ‘back’의 형태로 ‘보는’ 방향을 나타낸다. (42)도 ‘놓다(V₂)’가 ‘put’으로 먼저 나타나고 ‘내리다(V₁)’가 부사 ‘down’으로 동사 V₂행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한 사슬동사의 경우 동사인 V₂는 주된 행위를 나타내고, 부사인 V₁은 그 행위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B. [V₂+전치사]인 경우

한국어 사슬동사가 [V₂+V₁]의 순서로 번역될 때, V₂가 동사, V₁이 전치사로 나타난 경우(8개)에 본 병렬자료에서는 V₁이 모두 ‘들다’이고 영역본에서 ‘into’로 번역되었다. 그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3) a. ...하물며 그닥 엇볼 과거도 아닌 것을 왜 들여다보느냐구요. (풍금, p.40)

b. ...so why do you keep looking into it? (Harmonium, p.43)

(44) a. 담임 선생이 여느 때보다 굳은 얼굴로 교실을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채 5분도 안돼서였다. (영웅, p.70)

b. Not quite five minutes later, the teacher stepped into the classroom, his face grimmer than usual. (Hero, p.51)

(43b)에서 V₂는 ‘보다’를 의미하는 ‘look’으로 번역되고 (44b)에서는 V₂가 ‘서다’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step’으로 번역되었다. 두 문장 모두 V₁은 V₂행위의 방향이 ‘안쪽’을 향하므로 ‘into’로 번역되었다.

C. [V₂+현재분사]인 경우

[V₂+V₁]의 순서로 번역된 사슬동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V₁이 현재분사의 형태로(1개)도 나타났다.

(45) a. 제가 쿵, 떨어졌을 때 달려온 이는 그 여자, 그 여자였습니다. (풍금, p.70)

b. At the thud of my fall, she was the one who came running.

(Harmonium, p.75)

이 경우에는 위에서 V_1 이 부사이거나 전치사인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V_1 인 ‘달리다’가 V_2 인 ‘오다’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점이다. 다만 V_2 인 ‘오다’가 ‘come’으로 번역되어 먼저 나타나고, V_1 인 ‘달리다’가 ‘running’, 현재분사로 나타났다.

D. V_1 또는 V_2 의 방향이 변화된 경우

[V_2+V_1]의 형태로 번역된 사슬동사 형식적으로는 [V_2 +부사]의 분류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 다른 문장이 두 개 있었다. 한 문장은 V_1 의 방향이 바뀌었고, 또 다른 문장은 V_2 의 방향이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였다.

(46) a. 그 이후로 이 고장에 내려오거나 다시 이 고장을 떠날 때마다 저는 그 수돗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풍금, p.14)

b. Since then each time I came back or left I did the same. (Harmonium, p.15)

(47) a. 그토록 서성였는데 들어와 보니 집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풍금, p.16)

b. I had been loitering outside for such a long time but when I went in the house was actually empty... completely empty. (Harmonium, p.17)

문장 (46a)의 사슬동사 ‘내려오다’에서는 V_1 인 ‘내리다’의 방향이 바뀌어 나타났다. 원래라면 ‘down’으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back’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되어 영어와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왕조시대부터 모든 중심은 수도인 한양이었고,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이 집중되어 백성들에게 높은 곳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한자어로도 ‘상경(上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반대로 지방의 경우에는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며 높은 곳인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⁴⁾ 이러한 한국의 의식이 반영되어 주인공이 서울에서 지방인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지만, 영어로는 고향에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7)는 사슬동사 ‘들어오다’의 V₂인 ‘오다’가 ‘come’이 아닌 ‘go’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이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오다/가다’라는 동사가 화자가 발화하는 지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인 (47a)에서 화자는 심리적인 지시점을 계속 집에 두고 있어서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 ‘온’ 것이 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대화상의 맨 처음 발화에서 목표점이 결정되고, 이 목표점에 따라 지시점 이동이 발생하여 ‘come’이나 ‘go’의 쓰임이 결정된다(성태수, 2001). 즉, (47b)는 발화의 첫 부분의 목표점이 화자가 서성이는 ‘outside’이고 거기서 집으로 지시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go’를 사용한 것이다.

3.3 유형 3 - 제3의 어휘로 번역한 경우

본 병렬자료에서 제3의 어휘로 번역한 경우는 한국어 V₁과 V₂의 의미가 합쳐진 제3의 어휘가 나타났거나 약간의 의역이 가미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제3의 어휘로 번역한 유형은 품급에서 11개, 영웅에서 28개로 총 39개(17.6%)가 나타났다.

4) 배상복 기자의 우리말 산책,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sb2001&folder=1&list_id=12358257 참조

먼저 V₁과 V₂의 의미가 합쳐진 제3의 어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8) a. 백여 개의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까닭이었다. (영웅, p.27)

b. One hundred eyes were watching me. (Hero, p.12)

(49) a. 아버지께서 소 태를 거두시는 걸 보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신이 제
집마당에 서 계시더군요. (풍금, p.32)

b. I left him to deal with the umbilical cord and returned to find you
standing there in the yard. (Harmonium, p.35)

문장 (48a)의 사슬동사 ‘지켜보다’는 ‘지키다’와 ‘보다’가 합쳐진 사슬동사로 각각 번역된 것이 아니라 두 동사의 의미가 합쳐져 ‘지켜보다’의 의미를 가진 제3의 어휘 ‘watch’로 번역되었다. 문장 (49a)도 마찬가지로 ‘돌다’와 ‘오다’가 합쳐진 사슬동사 ‘돌아오다’가 ‘come back’이 아니라 ‘return’이라는 제3의 동사로 번역되었다.

약간의 의역이 가미되어 제3의 어휘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주로 한국어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다시 구체적인 영어표현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0) a. 선생이 그래도 아직, 하는 투로 그렇게 나를 몰아세웠다. (영웅, p.81)

b. Still won't give up, the teacher was thinking, as he scolded me. (Hero, p.59)

(51) a. 지금도 나는 상대방이 정신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를 한눈으로
가늠하려 드는 버릇이 있고 또 대개의 경우는 그 가늠이 맞아떨어지
는데... (영웅, p.50)

b. Even now I have the habit of sizing people up in terms of mind and matter and usually it **works out** that way. (Hero, p.28)

(50a)의 사슬동사 ‘몰아세우다’는 ‘몰다’와 ‘세우다’가 합쳐진 것으로 문맥상 공간적 의미의 ‘몰아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마구 다그치거나 나무라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50b)와 같이 'scold'로 나타났고, 또 다른 예문의 ‘몰아세우다’도 ‘rebuke’로 번역되었다⁵⁾. (51a)의 ‘맞아떨어지다’도 ‘맞다’와 ‘떨어지다’가 합쳐진 사슬동사이다. 이 역시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화자가 가늠하는 것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고, 제3의 어휘로 'work out'로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제3의 어휘로 번역된 경우에는 한국어의 V₁과 V₂의 두 동사가 영어에서는 하나의 동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국어의 비유적인 표현이 영어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으로 의역되어 나타난 동사들이 포함된다.

5) 작은 일도 지나쳐보거나 흘려듣는 일이 없는 만큼이나 느낌도 예민해 첫 총회시간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은근히 **몰아세웠다**. (영웅, p.142)

Sufficiently sharp in his feelings not to pass over or pretend not to notice small things, he **rebuked** us implicitly in our very first general assembly. (Hero, p.126)

제 4장 결 론

본 연구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한국어의 사슬동사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경숙(2012)의 「풍금이 있던 자리」와 A. Tennat (2012)의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그리고 이문열(1992)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K. O'Rourke의 *Our Twisted Hero*에서 221개의 병렬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번역된 동사의 개수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하나의 동사만 번역된 경우를 유형 I로 보고, 두 개의 동사가 번역된 경우를 유형 II, 제3의 어휘로 번역된 경우를 유형 III으로 두었다. 위의 세 개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번역이 생략되었거나 세 개 이상의 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 I은 다시 한국어 사슬동사의 V_1 만 번역된 경우와 V_2 만 번역된 경우로 나누고, 유형 II는 $[V_1+V_2]$ 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와 $[V_2+V_1]$ 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로 나누어 유형 III까지 포함하면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I의 V_1 만 번역된 경우(91개)는 동사(구)로 주로 번역되었으나 부사, 명사, 형용사로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다시 두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 V_2 가 보조동사인 경우’와 ‘ V_2 가 보조동사가 아닌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초급 학습자들에게 작문 교육을 할 때에 V_2 의 의미가 본래의 기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V_2 보다는 V_1 이 V_2 를 포괄하는 중심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V_1 만 번역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V_2 가 보조동사인 경우’에 속하는 일부 문장에서는 ‘완료’, ‘지속’, ‘경험’ 등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들은 현재완료 및 과거완료 등의 통사적 형태로 간접적인 번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초급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완료형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기 유용하다. 유형 I의 V_2 만 번역된 경우(25개)도 대부분은 동사로, 드물게 부사, 명사, 형용사 등으로 번역되었다. 주로 사슬동사 의미의 초점이 V_2 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유형Ⅱ의 $[V_1+V_2]$ 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15개)에는 V_1 은 주로 동사로 번역되었고, V_2 에 따라 $[V_1+부사]$ 인 경우(11개), $[V_1+명사]$ 인 경우(4개)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사슬동사의 어순과는 가장 반대되는 유형인데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V_2+V_1]$ 의 순서로 번역된 경우(42개)가 높게 나타났는데, V_2 가 중심의미를 나타내어 동사로 번역되고, V_1 에 따라 $[V_2+부사]$ 로 번역된 경우(32개), $[V_2+전치사]$ 로 번역된 경우(8개), $[V_2+현재분사]$ 로 번역된 경우(1개)로 나뉘었다. 이 유형에서는 V_2 가 중심 행동을 나타내고 V_1 이 그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로 많이 번역되었다. 예를 들어, ‘돌다(back)’, ‘내리다(down)’, ‘오르다(up)’, ‘올리다(up)’, ‘들다(in/into)’ 등이 V_1 에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부사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지도할 수 있다.

제3의 어휘로 번역된 유형Ⅲ(39개)은 V_1 과 V_2 의 의미가 합쳐진 하나의 동사로 번역되었거나 의역이 가미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이는 중급 이상의 영어 입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영어와 한국어 간의 문화와 언어적인 차이가 번역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상급학년에 진급할 때 한국어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만 ‘올라간다(go up/move up)’는 표현을 사용하고, 학년간 진급에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표현인 ‘enter’ 또는 ‘go into’를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방 또는 고향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고향에) 돌아간다’는 의미로 ‘come back’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가다/오다’와 영어의 ‘go/come’의 차이로 인한 번역의 차이도 드러났다. 이는 문화의 차이가 언어에도 반영되므로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이 문화와 함께 교육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병렬언어자료

- 신경숙. 2012. 『풍금이 있던 자리』. 서울: 아시아.
- 이문열.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서울: 민음사.
- Shin, Kyung-sook. 2012.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Agnita Tennant Trans.). 서울: 아시아.
- Yi, Munyol. 1995. *Our Twisted Hero* (Kevin O'Rourke Trans.). 서울: 민음사.

참고문헌

- 강현화. 1996. 동사 연결 유형에 관한 새로운 시각. 『한글』 (234), 119-148.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남영신. 2005. 『한국어 용법 핸드북』. 서울: 모멘토.
- 박선옥. 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서정수. 1996. 『국어 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태수. 2001. ‘오다/가다’와 ‘Come/Go’. 『남서울대학교 논문지』 7, 389-401.
- 신봉수. 1999. 영어 직접작문과 번역작문의 오류비교에 관한 실험적 연구. 『영미어문학』 (57), 283-301.
- 이기동. 1977. Verb Particle Out의 의미분석과 응용. 『영어교육』 (13), 55-70.
- 이영현. 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 가지 특성. 『언어』 21(4), 1137-1157.
- 이영현. 2006.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155-176.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최현배. 1994.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Jo, I. 1993. *A Unified Semantic Analysis of Serialization: Intensionality of Even*

- Individuation*. Ph. D.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Kim, J & Yang, J. 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in the Korean LKB System.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Lee, S.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Yang, I. 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49-68. Columbia, South Carolina: Hornbeam Press.
- 배상복. 2011. ‘배상복 기자의 우리말 산책’,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_slide.asp?uid=bsb2001&folder=1&list_id=12358257.

